

LED조명,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LED포럼 적합업종 유보 요청에 반발 ... 산업포럼은 대기업 대변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것을 두고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등 3개 중소기업 조합은 11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LED조명을 적합업종에 선정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며 “LED산업포럼의 유보 신청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포럼은 유보 신청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지식경제부는 더이상 산업포럼을 앞세워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기업들의 조명시장 장악을 우려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합 측은 “오스람(Osram)과 필립스(Phillips), GE(General Electric) 등 외국기업들의 주력제품은 별브형 LED”라며 “동반위의 권고에서도 별브형 LED 분야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에 시장 잠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반위가 형광등 대체품목인 직관형 LED를 <다품종 소량생산품>으로 분류해 대기업 참여 제한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상품이 아니다”며 적합업종 선정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동반위는 LED조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게는 민간용 별브형 LED, MR, PAR 등 3개 품목만 참여하고 공공시장에서는 전 품목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LED산업포럼은 대기업·중소기업·관련조합들이 포함된 동반성장 협의체로 11월9일 “포럼에서 합의한 내용과 동반위 권고내용이 다르다”며 적합업종 선정 유보를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14>